고흥군, 저탄소 영농활동 온실가스 감축 '앞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농가 최대 31만원 지원
50ha 이상 규모화 농가 대상
35농가 222ha 선정 추진·교육

고흥군이 저탄소 영농활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다. 저탄소 배출을 위한 논물관리 프로그램 참여 농가에게 ha당 최대 31만원을 지원해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줄여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는 벼농사 농업인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를 실천한 벼 재배 농가에 활동비를 지급하며 중간 물떼기 활동 시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 대기 활동 시 ha당 16만원을 지원한다.

중간 물떼기의 경우 모내기 이후 한 달부터 14일 이상 용수 공급을 중단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종료 후 2~5㎝ 깊이로 용수 공급 후 자연적으로 논물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해야 한다.

사업 대상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수령 대상 필지 및 농업인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이다.

고흥군에서는 올해 3개 법인(35농가), 222ha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27일에는 사업 추진체계, 주요 활동 내용, 이행 증빙 방법, 활동비 산정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행점검 후 오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눈높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없애고 논물관리를 통해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어린이 다목적구장 문 열어
광양백운산자연휴양림

광양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 어린이 다목적구장'을 27일 개장했다.

이번에 개장하는 '숲속 어린이 다목적구장'은 면적 118㎡ 규모로 풋살, 농구 등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됐다. 종합숙박동 인근 기존 운영 종료된 물놀이장을 성장기 아동들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다목적구장은 12세 이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 안전을 위해 5세 미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시는 다목적구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운영 중인 산림교육(유아 숲)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박경주 휴양림과장은 "평소 휴양림을 찾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연 체험을 위해 작지만 알찬 놀이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취약계층 대상 반찬 나눔·전달
여수시동문동 지사협

여수시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윤진두)가 지난 21일 동문동 주민센터에서 밑반찬 전달 행사를 가졌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무더위 속에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제육볶음과 김자반, 열무김치 등 밑반찬을 준비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년 추진하는 '행복반찬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윤진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식사 준비를 제대로 준비하기 힘든 취약계층 세대에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정 동문동장은 "무더운 날씨에 정성껏 밑반찬을 준비해 나눔에 앞장서 주신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항상 이웃을 돕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동문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21일 여수시 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밑반찬행사를 펼쳤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열무김치 등 밑반찬을 준비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했다.

여수시 제공

제9회 여수에코국제음악제 열린다

다음달 20~23일

여수시가 주최하고 (재)범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제9회 여수에코국제음악제'가 다음달 20일부터 23일까지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린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감각을 깨우다'를 주제로 4일간 총 4회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2024 여수에코국제음악제는 예술감독 서울대 김민지 교수를 주축으로 하프시코드 아렌트 흐로스펠트 그리고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등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첫날인 20일에는 모차르트의 '희유곡 잘츠부르크 교향곡 제1번'과 비발디의 '콘체르토 그로소', 안성민의 '음악이 에코다',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연주된다.

21일에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종달새'와 베버의 '피아노, 플루트와 첼로를 위한 3중주',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를 선보이며 22일에는 포레의 '돌리 모음곡'과 아렌스키의 '현악 4중주 2번',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가 마련된다.

마지막 23일에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왈츠' △존 윌리엄스의 '쉰들러 리스트 주제곡' △엔니오 모리꼬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짝눈의 노래와 데보라의 주제 △유년기와 성년기와 사랑의 주제' 등이 연주되며, 2부에서는 △포퍼의 '콘서트를 위한 폴로네이즈 Op.14' △바흐의 '샤콘느 BWV.1004' △더 비틀즈의 'Ob-La-Di-Ob-La-Da', 'Hey Jude', 'I Will', 'Yesterday', 'All My Loving'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전남 동부권 일원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등에서 펼쳐지는 '넷제로 페스타 여기있수'도 예정돼 있다.

티켓은 다음달 19일까지 인터파크(1544-1555)에서 예매(전 좌석 5만원)할 수 있으며 공연 관련 문의는 범민문화재단(061-666-3139)으로 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취약지역 조명시설 설치
광양시, 안전사고 예방

광양시는 농촌지역 및 골목길 등 안전 취약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취약지역 조명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수요조사를 통해 각 읍면동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유동 인원이 많은 지역, 야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보안등 설치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동안 사업비 약 2억3000만원(시비)을 투입해 12개 읍면동 지역에 보안등 146개, 공원등 7개, 투광등 12개, LED바 38개 등 총 203개를 설치 완료했다. 빛 공해 방지를 위해 빛 가림막 설치, 심야소등 등을 통해 설치 대상지에 대한 빛 공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상반기에 설치된 보안등 외에도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 지역과 상반기에 미선정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약 100여개의 보안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박종선 가로등팀장은 "읍면동에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 지역에 대해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야간 보안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있다"며 "밝고 쾌적한 도시조성과 시민의 야간 안전 통행을 위해 보안등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년 말 읍면동을 통해 보안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조사에 누락된 대상지에 대해 수시로 각 읍면동에서 가로·보안등 설치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거주지 주변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마을 이장이나 해당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엔' 5000원 쿠폰 지급 이벤트
스마트음식점 예약·결제 시

여수시는 27일부터 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 '여수엔'을 통해 스마트음식점에서 사전예약 및 결제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쿠폰 5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수엔'은 여수의 관광지나 숙소, 음식점, 편의시설, 교통안내 등의 정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MZ 세대를 겨냥한 AR캐릭터 잡기와 여행 전 관광지 정보 탐색 등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 여행일정 플래닝, 스마트 오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여수엔 음식점 사전예약 기능을 이용해 예약·결제 시 결제 페이지에서 자동 발급된 5000원 쿠폰을 선택해 바로 적용해 결제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AR캐릭터 잡기 이벤트에서 캐릭터잡기 5개 이상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1만포인트(50명)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

전남도농업기술원, 귀농·귀촌인 커피·차산업 교육 모집

버섯재배 등 5개 과정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6월 중 실시할 스마트 버섯 재배기술과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활용, 커피와 차 산업 활성화 등 총 5개 과정에 125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 버섯 재배기술 과정은 4일부터 2일간 버섯 재배농가와 귀농·귀촌인 등 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버섯산업의 미래전망, 재배기술, 체험·판매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사례 등을 교육한다.

귀농인 농촌생활기술 과정은 12일부터 3일간 도내 전입한 5년 미만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 안내, 목공·용접 등 생활 활용 기술 등을 교육하고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활용 과정은 13일부터 2일간 도내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 운전조작과 긴급 점검·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커피와 차 산업 활성화 과정은 19일부터 3일간 도내 커피와 차 재배 농업인과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재배 기술, 가공기술 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가공·체험 등과 연계한 융복합산업화를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전통주 제조 과정은 26일부터 3일간 도내 전입한 5년 미만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술 제조기구 활용, 술 전처리, 발효제 띄우기 등 전통주 제조 실습과 우수 선도농가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로 문의하면 되며 교육과정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세부 일정은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 jare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천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은 "농촌현장에서 6월은 모내기와 마늘·양파 등 밭작물 수확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바쁜 와중에도 교육에 참여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